

선교와 지역교회

- 김사무엘 선교사 -

오사카 온누리교회 목사, 현 한국 선교부 대표,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

지역교회를 떠나서는 선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열정, 인원의 파송, 재정의 지원 그리고 사역의 계속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필수성과 후원을 생각할 때, 지역교회는 수억 만리의 흑성을 향하여 떠나는 로케트의 발사 기지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비유한다면 지역교회는 발사기지이면서 그 첫 분사를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선교의 도전과 이에 대한 헌신이 있고 이 소명에 따라 인원과 재정을 투입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떠나게 하는 첫 발사 단계를 담당하는 곳이 곧 지역교회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헌신한 선교사들이나 지원 사역은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분사 단계에 돌입합니다. 많은 선교 지원자들이 있으나 적절한 돌봄과 훈련이 주어지지 않기에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해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수많은 재정과 물자가 선교지로 보내지지만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 있는 가이드와 관리가 결여되어 목적인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허비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힘차게 지상을 박차고 창공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는 출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한 제2의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지를 향한 돌입에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 현장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백 명의 헌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강단으로 나아가서 선교에 헌신했지만 실제로 선교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미비한 현실입니다. 이 선교 헌신자들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주어진 상황을 최대로 이용하여 부르신 소명을 키워 나가는 양육 단계가 필요하고, 세상으로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선교 현지에 도착하여 소정의 사명을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본부 기지와 긴밀한 통신과 보고와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자료가 본부로 송신되어 분석되고, 전략적인 목표의 설립과 정보처리의 전문적인 자료에 의하여 현 사역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건강한 지역교회는 선교의 원료를 제공하는 곳이요, 훈련과 양육과 관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될 것이며, 파송 이후의 돌봄은 이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로 들어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헌신된 인력의 훈련, 양육을 맡아 감당하는 사역과 이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ダイナ믹한 선교 운동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